

농림수산물식품부

배달용 치킨, 소금, 오리고기 등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금년 8월 5일부터 적용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을 지난 6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65만개)에 대하여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와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원산지표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는 8월 5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하여,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 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 (이하 '수입산' 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 ▲ 게시판 등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 ▲ '수입산' 과 '국산' 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 '수입산' 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산', '국내산' 또는 '원양산' 이라고 하는 대답하는 경우

- ▲ 진열장에는 '국내산' 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 을 주는 경우

또한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의 경우 종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원산지 표시에서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아시아 최초 OIE 뉴캐슬병 표준실험실 인정 획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2010. 5. 23~27)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OIE 뉴캐슬병 표준실험실(OIE Reference Laboratory)로 인정받고, 최강석 박사가 OIE 전문가로 공식 지명되었다고 밝혔다.

OIE 표준실험실은 질병연구와 방역기술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연구기관과 전문가에게 주어지며, 뉴캐슬병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전 세계에서 6개국만이 표준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1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뉴캐슬병 표준실험실 지위 획득(인정)을 기념하는 헌판식과 기념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하영제 제2차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소 브루셀라병에 이어 닭 뉴캐슬병

에 대한 OIE 표준실험실로 인정받은 것은 그 동안 국제적인 연구 수준과 진단경험이 축적된 결과”라며 “우리나라 축산업뿐만 아니라 OIE를 대표하는 국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OIE를 대표하여 뉴캐슬병 표준실험실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양계 질병 분야에서 국제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경제적 효과도 함께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뉴캐슬병 표준실험실을 보유·운영하게 됨에 따라 양계 질병관련 국제적인 각종 현안사안 해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 국제적인 영향력 행사와 함께 국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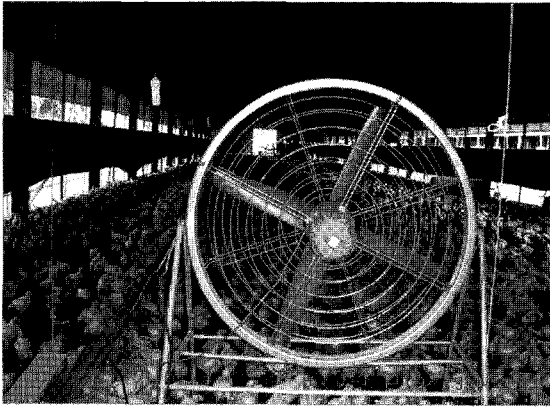
또한 OIE를 대표하여 진단표준품 개발 및 제공, 교육훈련 및 과학적 기술자문 등을 통해 국내 진단품, 예방약 등을 지원할 수 있어 국내 동물약품 업계의 인지도 향상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혹서기 양계 사양관리 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양계 사육농가들이 혹서기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혹서기 양계 주요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은 세계적인 온도상승에 의해 무더운 기후가 지속되리라 예측된다. 닭에 적합한 온도는 20℃ 전후로서 기온이 30℃ 이



상이 되면 고온의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특히, 닭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혹서기 사양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육계의 경우 혹서기 무더위 극복을 위해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차광막을 설치해야 하며, 무창계사에서는 체감온도를 낮추어 주기 위하여 환기팬의 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방계사에서는 계사의 중간 중간에 릴레이 환풍기를 설치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흐르도록 한다.

혹서기에는 단위 면적당 사육밀도를 줄여서 체열발산에 의한 온도상승을 감소시켜야 한다.

무더위는 닭의 식욕을 감퇴시켜 사료섭취량 감소에 의한 생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하루 중 시원한 시간대에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이른 새벽이나 시원한 저녁에 사료를 급여하도록 한다.

석양 무렵의 직사광선은 더위에 지친 육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개방계사의 경우 차양 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직사광선이 닭에게 닿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차양시설 설치 시 계사측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스듬하게 설치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 식육가공·유통 관련 특강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은 지난 6월 22일 강원도 원주 소재 상지대학교(총장 유재천)에서 식육가공·유통전문가 양성과정 2기생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미래와 가치를 생각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강원지역의 축산물유통업계 관련자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습득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청렴의지 확산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윤리경영 추진활동 등을 소개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완상 전 부총리 초청, 특강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6월 14일 직원의 전문지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한국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한완상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이날 강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가혹한 시기를 지나 이제 경제적 · 문화적 · 정치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의 난관을 제일 먼저 헤쳐 나가는 등 한국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의 원칙을 세우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규직원 대상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6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지난 5월 3일부터 7주 동안에 걸쳐 실시한 신입직원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신규직원 26명에 대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멘토링은 선 · 후배 직원간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기준원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리더쉽과 책임감이 강한 선배직원 21명을 멘토로 선정했다.

멘토-멘티는 앞으로 월 1회 이상의 모임을 갖고 기준원 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행정수행 능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HACCP기준원맨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7주년 창립기념 임 · 직원 체육대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6월 26일 경북 구미소재 청소년수련원에서 450여 명의 임 ·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주년 창립기념 임 ·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1월 구제역이 8년만에 재발생 되어 지난 6개월간 우리 본부는 초동방역팀 운영, 주요 통제초소 운영, 구제역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사업 등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FTA 등 개



방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위생·검역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본부는 이날 축구, 피구,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임·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

창립총회 개최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주)는 지난 6월 12일 대한영양사협회 회관에서

재단법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1994년부터 환자나 일반인의 영양과 관계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임상영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영양사 양성에 힘써 그 동안 3,000여 명의 임상영양사를 배출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법 제도 내에서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마침내 2010년 3월 26일 공포된 「국민영양관리법」 내에 국가자격으로 임상영양사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질 높은 임상영양사 양성과 관리를 위해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이 창립되게 되었다.

김경주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창립총회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을 대표발의한 손숙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손숙미 의원은 앞으로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이 임상영양사 국가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이 창립되기까지의 경과가 보고되었으며 김경주 대한영양사협회장이 임시 의장으로 선출되어 정관 제정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재산 출연의 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이 심의되었다.

앞으로 재단법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의 양성과 관리를 위해 교육의 질 향상과 자격시험 관리에 관련된 연구, 임상영양사 양성교육 인증 평가사업,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